



光州日報 창사 60주년 기획시리즈

생명산업 농업을 다시 본다 <44>

<6부> 수산업, 지금이 기회다

9 어업인 주식회사

전문가가 경영하고 어민은 생산 전념...‘기업화’로 활로



신안 송도위판장의 새우젓 경매 장면. 신안새우젓(주)은 설립 1년만에 1억원이던 매출액을 11억원으로 늘렸고 지난해에는 일본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북도 주식으로 투자한다

공모 통해 자금 조달...가공공장 지어 부가가치 확대

전복·꼬막·새우젓 등 전남의 대표 수산물에 주식으로 투자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어업인 주식회사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에 나서는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에 나섰기 때문이다.

완도전복(주)은 지난 6월 주당 5000원에 29억1000만원을 증자했다.

당초 목표액인 41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주관 증권사없이 직접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완도에 있는 본점 사무실을 방문해 청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로써 완도전복은 1212명의 주주에 자본금은 88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최대주주인 완도군청이 29억5000만원을 출자했고 완도수협이 5억원, 어업인 및 일반인들

이 53억6000만원의 자본금을 냈다.

완도전복은 증자한 자금으로 가공공장을 지어 현재 활전복 중심의 매출 구조를 전복 분말과 통조림 등 가공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밖에 신안새우젓도 지난 4월 증자를 추진했고 여수새고막은 증권사를 통해 공모를 추진했다가 어민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한 회사 정관을 고쳐 일반인 공모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완도전복 관계자는 “수산물도 작거래를 통해 마진을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업까지 확대하면 수익성이 충분하다”면서 “자본시장을 통해 재무구조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국에서 낙지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디일까?

세발낙지로 유명한 무안일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정답은 장흥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흥에서는 연간 2340t의 낙지를 생산해 전국 생산량(1만636t)의 22%를 차지했다. 장흥은 그동안 한우·키조개·표고버섯 등 3대 특산물로 이뤄진 ‘장흥 3합’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낙지가 장흥의 새로운 특산물로 등장하면서 ‘장흥 4합’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흥이 전국 최대의 낙지 산지로 자리잡은 데는 염산을 사용하지 않은 무산(無酸)김 양식이 한 몫을 했다. 2008년까지는 장흥에서도 양식 어민들이 김에 달라붙는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 염산을 사용했지만 2009년 2월 어업인 주식회사인 장흥무산김(주)이 출범하면서부터는 염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염산은 분해되지 않고 바다 밑에 가라앉

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구조 개선 효과가 가장 가시적이다.

6단계이던 유통단계가 4단계로 줄면서 생산자는 더 받고 팔고, 소비자는 덜 주고 사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유통업자에게 관행적으로 얹어주던 ‘덤’이 20~30%에서 10% 수준으로 줄었고 판매대금 결제 소요 기간도 3~6개월에서 1주일 이내로 단축됐다. 완도전복이 대표적인 사례로 완도군은 덤 물량 축소로 3년간 1200억원대의 손실을 줄였고 결제기간 단축으로 45억원의 금리 인하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매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장흥무산김은 첫째 3억원이던 매출이 2010년 5억3000만원, 2011년 9억7000만원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완도전복도 2009년 46억원이던 매출이 2년만인 지난해 220억원으로 급증했다. 상시고용 104명을 포함해 1500여개의 일자리도 새로 생겼다.

수출시장 개척에도 영향을 줬 완도전복, 신안새우젓, 장흥무산김 등 3개 회사가 지난

생산·가공·수출 총괄...유통단계 단축해 불이익 개선

완도전복 덤·결제기간 줄여 3년간 1250억원 절약

장흥 무산김 등 전남 6개社, 전국 시장 지배력 강화

아 갯벌 등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수년 동안 염산을 사용하지 않아 낙지와 매생이, 굴이 되돌아 오는 등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 무산김 양식이후 장흥 바다에서는 낙지 생산량이 20%, 매생이와 굴 생산량도 10~30%가량 늘었다.

장흥무산김(주)처럼 어업인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어업인 주식회사가 전남 수산업의 규모화와 기업화를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인한 어촌의 노동력 약화로 수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수산업의 기업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해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어업인 주식회사 설립을 시작했다. 영세한 어업 규모와 복잡한 유통과정으로 인한 중간상인의 과도한 유통마진 개선도 어업인 주식회사 설립의 배경이 됐다.

어업인 주식회사는 어업인이 주주로 참여해 생산에 전념하고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구조다. 2009년 2월 장흥무산김을 시작으로 완도전복, 신안새우젓, 여수녹색멸치 등 지금까지 6개의 어업인 주식회사가 설립돼 전남 수산물의 전국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여수·순천·고흥·보성 등 4개 시군 102명이 참여한 새고막(주)을 비롯해 여수홍합(주), 영광꽃게(주), 목포연근해어업(주) 등도 설립을 추진 중이다.

어업인 주식회사가 가져온 효과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유통단위 축소로 생산자

해 수출한 물량은 171t에 12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김·미역·여류·굴·홍합 등 8개 품목의 어장개발이 신규로 가능한 것도 보다 다양한 어업인 주식회사가 탄생하는데 좋은 토양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금처럼 어업인이 생산·가공·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모델부터 어업인이 출자만 하고 작업비를 받고 생산 작업을 대행해주는 형태의 주식회사까지 4개 유형의 어업인 주식회사를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업인 주식회사에 국비와 지방비 등 재정지원을 하는 만큼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최근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장흥무산김 초대 대표와 공무원을 구속한 사례에서 보듯이 60%가량을 지자체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만큼 언제든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갑준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 “일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지만 어업인 주식회사가 미래 전남 수산의 기업화·규모화 모델인 만큼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KF 한국농어촌공사 후원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작거래로 저렴합니다

농생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